

“우리 목표는 월드컵 우승”

‘광양루니’ 이종호 등 U-20 국가대표 21명 확정

이달 말 국제축구연맹(FIFA) 주최로 콜롬비아에서 개최하는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출전할 선수로 뽑힌 태극전사들이 당찬 목표를 공개했다.

프로축구 전남의 골잡이로 활약한 ‘광양루니’ 이종호(사진)는 14일 과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열린 전술훈련을 앞두고 “우리는 이번 대회의 목표를 우승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16강에서 탈락하려고 대회에 나가는 팀은 없는 만큼 처음부터 우승을 목표로 잡아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것이다.

이종호는 “선수 모두가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고 했다”며 “큰 목표를 세워기며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골을 넣어야 할 공격수라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나

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에서 모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호는 해외파 공격수들이 대거 불참하는 것과 관련, “16세부터 대표팀에서 손발을 맞춰온 선수들이 7~8명 있다”며 잘 싸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 ‘지옥훈련’이라고 불릴 만한 체력훈련을 치렀다”며 “우리 선수들은 노력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두 믿기에 목표를 크게 우승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콜롬비아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말리, 프랑스, 콜롬비아와 함께 A조에 편성돼 조별리그 1~3차전을 치른다.

그는 개인기보다는 조직력을 먼저 생각해 뛰겠다며 폭넓은 움직임과 공간쇄도 능력

등 자신의 장점을 살린다면 최전방 공격수로 떠안은 골부담을 동료와 함께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팀의 주장이자 중앙 수비수인 장현수(연세대)는 힘들게 쏟아낸 땀의 대가를 확신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현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옥훈련’으로 일정나게 힘들었다”며 “우리 선수들은 노력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모두 믿기에 목표를 크게 우승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콜롬비아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말리, 프랑스, 콜롬비아와 함께 A조에 편성돼 조별리그 1~3차전을 치른다.

◆2011 FIFA U-20 월드컵 최종명단(21명)



▲GK = 노동건
(고려대) 김진영(건국)
대) 양한빈(강원) ▲DF =
장현수(연세대) 임창우(울
산) 김진수(경희대) 황도연
(전남) 민상기(수원) 이주영(성균관대) ▲
MF = 김경중(고려대) 남승우(연세대) 문
상윤(아주대) 이기제(동국대) 백성동(연세
대) 최성근(고려대) 김영욱(전남) 이민수
(한남대) 윤일록(경남) ▲FW = 이용재(남
트) 이종호(전남) 정승용(경남)

/연합뉴스

美-日 여자월드컵 우승 다툰다

프랑스·스웨덴 각각 3-1 꺾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랭킹 1위 미국과 아시아 최강 일본이 2011 FIFA 여자월드컵 결승에서 격돌한다.

미국은 14일 독일 뮌헨글라트바흐의 보루시아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대회 준결승에서 3-1로 이겼다.

1991년 1회 대회와 1999년 3회 대회 우승 팀인 미국은 스웨덴을 3-1로 제압한 일본과 우승컵을 다퉐했다.

전반 9분 로렌 체니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미국은 후반 10분 프랑스에 만회골을 허용해 1-1로 팽팽히 맞섰다.

후반 34분 애비 월바크가 체니의 크로스를 헤딩볼로 연결해 승부를 갈랐고 후반 37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박지성의 여유

맨유의 박지성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주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프로축구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친선경기서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맨유가 4-1로 이겼다.

/연합뉴스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이 1999년의 3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미국과 일본의 결승은 우승컵뿐만 아니라 양팀 에이스를 간의 득점왕 경쟁의 승자를 가리는 한판이 될 전망이다.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의 마르타가 4경기

에서 4골을 넣어 선두에 올라 있지만 사와가 준결승까지 5경기를 뛰며 똑같이 4골을 넣었고 월바크가 3골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 알렉스 모건이 재차 골망을 갈라 빼기를 막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FIFA 랭킹 4위에 올라 있는 일본은 여자 월드컵 최초 4강의 기세를 몰아 스웨덴을 3-1로 꺾고 결승에 진출, 미국을 상대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